먹고 살려면 반드시 일해야 하나?

(살후3:1~18)

6.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7.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8.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9.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10.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13.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먹고 살려면 반드시 일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먹고 살려면 반드시 일을 해야 하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고 살려면 반드시 일을 해야 하지요.
당장이라도 내가 오늘 아침에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먹고 살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먹고 살려면 반드시 일을 해야 하나?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입니다,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일을 해야 하나라고 하는 이 말에서, 반드시 일은 해야 합니다.
살아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일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 일을 하는 목적과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그러면, 신앙은 무효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이.
그러나 그렇게 상식적이고 타당해 보이고 올바르게까지 해 보이는 그 말이, 여전히 내 마음 속에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복음이 무효화 된 겁니다.
복음이 복음으로서 작용한다 그러면, 내가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좋습니다.
일을 하는데, 그 일은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비용은, 그것도 하나님이 따로 주시는 겁니다.

복음이 제대로 역사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일은, 모든 행동들이 다 이 세상에서 서로 연관성을 갖는 게 아니고, 먹는 것과 일하는 것이 일하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일하느냐, 이런 싸움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위에서 기인되고 있기 때문에, 일도 위에서 내려오고 먹는 것도 위에서 내려옵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먹는 것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땅 위에서 먹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도 위에서 주어지고 먹는 것도 위에서 주어집니다.
일한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었다는 건 죄의 저주에서 풀려난 거 아닙니까?
죄의 습성은 남아 있지만, 죄의 저주로부터 풀려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려워요.
사실 어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점이 어디에 있냐면, 너무나 어려울 게 없는 쉬운 본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10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가르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데살로니가교회에서는, 사도바울이 있을 때부터 이런 게 문제였던 거 같아요.

게으름을 피우고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은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너무나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쉬운 말씀 아닙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동네에 계신 어른들이나, 집안의 어르신들이 늘 어린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에게 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영성의 무한한 보고인 성경이 아니라, 무슨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윤리 교과서를 대하는 느낌입니다.
좋게 말하면 잠언 정도의 느낌이 나는 구절이라고나 할까요?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탈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데살로니가교인들은, 어느 지역의 어느 교회보다도 환란과 박해가 아주 극심했던 지역의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가치의 힘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그러한 환란과 박해의 극심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끊임없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연결을 이어갈 수 있고, 그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가치의 힘을 무력화 시키고, 그 가치들을 통해서 이용해서 악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 세상에 머물도록 이 세상에 묶어 둘려는 마귀의 궤계를 깨뜨려 버리는 통쾌함이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일만 만들고 돌아다니지 말고, 조용히 일을 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건 뭐 성경이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이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부지런함을 기리는, 덕으로 기리는, 게으름을 그리고 나무라는 그런 어조의 말씀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또 이게, 이렇게 느낌상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노동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위임하신 노동의 내용이 뭐냐 하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들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과정 그 일환이지요, 그렇죠? 이런 거였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7절에 타락 이후에, 노동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그 앞에서 노동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다스림이 일어나고 있을 그 때에는 먹는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았어요, 먹는 문제를 위해서 일할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타락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냐 하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뒤에, 저주를 받은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노동하는 겁니다.
먹고 살려면 꼭 일을 해야 되나?
그렇다고 느끼고 질문이 바보 같다고 여겨진다면, 바로 이 창세기 3장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리신 저주의 내용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거다 이겁니다.
아직도 우리 의식이 너무 당연하게, '아! 그러면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지, 어떻게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아직 저주적 의식이, 우리 안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통해서 온전한 죄 사함의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의 관계를 이룬 사람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노동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쉽게 말해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일이냐 이거에요.
어느 직장이든 좋습니다.
시장에서 나물을 캐다 파는 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하는 거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나라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일, 내가 지금 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남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은 그것대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이 아래에서 내가 어떻게 함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내가 일했기 때문에 월급을 주는 건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전세계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나왔다 그러잖아요, 파업하기 위해서 노동을 안 하면 임금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월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노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의식을 뗄래야 뗄 수가 없지요,
그건 아직 복음이 제대로 작용 안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복음이 제대로 작용하고 효과를 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직장을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내 마음에서 믿어집니다.
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월급을 받을 때,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월급은 월급대로 하늘에서 따로 떨어져 내려오는 것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월급이 자꾸 내 노동한 것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동에 대한 의식부터가 잘못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월급이 노동의 대가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노동한 대가라고 여겨지지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에요.
무엇을 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인데, 내가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장사를 하게 되면, 들어오는 수입은 수입대로 하나님께서 따로 주시는 거고, 그래서 더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노동한 대가로 월급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동한 대가로 주어진 건데, 대가인데 뭐 은혜입니까? 은혜라는 건 공짜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 그냥 내 노력만큼 사는 것이고, 노동도 은혜라고 생각하면 월급도 은혜

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은혜를 받는 거지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도대체 사도바울은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또 자비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천막을 기워서 먹고 살았던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고린도교회에서는, 고린도교회의 지원금을 받으려하지 않고 자비량했던 이유가, 고린도교인들은 생명을 주는 진리조차도 자기들이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경향이 짙었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대가로 돈을 지불받아 버리면, 자기들이 복음도 돈으로 사는 줄 아니까, 다른 일반 철학교사들에게서 지혜로운 강의를 돈 주고 사서 듣듯이 그렇게 생각할 거 같으니까.
데살로니가교회는 또 이유가 나와요, 왜 천막을 굳이 기우면서 살았는지를.
데살로니가교회가 박해가 심하고 그러니까, 일찍이 사도바울이 있을 때부터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말론이 자꾸 부작용을 일으켰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부터도 그런 경향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고린도에 와서 들으니까 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6절에 '게으르게 행하고'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게으르게 행하고'라는 말은, 질서 정연하게 제자리에다 딱딱 배치를 하는 것이라는 '탓소'라는 단어와, 그걸 부정하는 '아'라는 단어가 합쳐서, '아타크테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게으르게 행한다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군대가 질서 정연하게 행진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중간으로 제멋대로 움직여 버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게, 나태해서 안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라, 제멋대로 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는 얘기에요.

같은 의미가 11절에 또 뭐라 그러냐 하면, '일만 만든다' 그러잖아요, 일만 만든다.
일을 안 한다고 걱정인데, 또 여기선 일만 만든다 그래요.
일만 만든다는 얘기가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것도 합성어인데 쉽게 말하면, 주변으로 관심을 기울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주변으로.
자기 일에 열중하지 못하고, 주변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옆에 옆으로.
이것도 또, 군대가 질서 정연하게 행진할 때 자꾸 옆에 사람한테 걸거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

면 이런 거예요.
먹지도 말게 하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참 말씀도 못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 깊은 곳에서의 생각은 어떤 생각에서 그게 피어오르는 말씀이냐?
구약에 보면 여러분, 시체에 손대면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다고요?
시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아 있다는 것은, 하늘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려는 뜻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겁니다.
뜻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 두셨는데, 재림 운운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아무 소용도 없는데, 이까짓 일들 다 해서 뭐하느냐 생각해 가지고, 아무 일도 안하고 자기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만 간섭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면서,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문제만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도바울의 생각에는, 분명히 너희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아직 육체가 살아 있다는 것은, 내일 재림하시더라도 오늘 죽지 않고 내가 살아 있는 것은, 오늘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데, 너희가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다는 근본 진리를 망각한 채로, 아무 일도 안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럼 너희가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차라리 먹지 말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기 일을 하여 조용히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것도, 내 몫의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내 몫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위한 올인원 대비책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생활화였습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면, 종말에 대해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죽더라도, 죽을 때의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죽을 때의 우리의 상태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기에 적합한 마음이 되려면,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활화 한다는 것은,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 떠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 이 세상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욕이 없어지고 죽었으니까, 이 세상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묘한 역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생활화해서 자꾸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었다가 그 좋은 것들에 대한 바람이 있고, 그 바람대로 안 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자꾸 마음이 하나님께로 부활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자꾸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이 느끼게 되면 될수록, 세상일에 대해서 의욕이 자꾸 사라집니다.
하고 싶은 일도 없어요, 대단해 보이는 모든 일들이 다 시시해 보입니다.
사도바울이 배설물 운운했던 것들이 다 이해가 갑니다, 공감이 갑니다.
목사님들에게, 수백 억짜리 예배당 건물을 짓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마음에, 수백 억짜리 예배당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짓는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내 기업으로 갖게 되면.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의욕이 없습니다, 소원이 없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근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 순간이야 말로 진짜 그 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는 순간이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의욕이 없고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것이 배설물로 느껴지는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뒤섞여 갖고 내 뜻하고.
근데 거꾸로 또 말하면 사람이 살아 있는 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기 때문이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이 가려져 있는 것은,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뭘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기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문제가 될 확률은,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러나 온전히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생활화하게 될 때는, 안 하겠다는 경우도 하겠다는 경우도 모두 다 없어지고, 오직 나는 하나님을 내 기업으로 삼고 만족한 상태에 이르고,

살아있는 이 육체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양식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먹지 말라! 생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생존하고 있는 이유가 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네가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를 통해 이루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내일모레 재림이 일어나더라도, 이틀 동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 두시는 건데, 그 생존의 이유인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아랑곳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니 그러려면 차라리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가 돼 버리든지'라고 나무라는 조로 하시는 말씀이지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절대로 먹고 살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 행동들이 분절이 되면서, 이 땅에서 보면 분절이 된 거에요.
마치 우산살이, 우산살들끼리 보면 다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앙에 우산대에 다 집중해서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행동들은 이 지상에서 서로가 연결이 되면 안돼요.
서로가 목적과 이유와 계기가 되면 안돼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 분절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오직 위에서만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라 하셨고, 하나님이 먹으라 하셨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하나님이 쓰라 하셨고, 하나님이 사라 하셨고…
전부 다, 다 분절돼서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에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이유가 돼서 할 것이지, 먹는 것도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먹으나 안 먹으나, 주의 기쁨을 위해서 하라.
주의 기쁨을 위해서 하라, 뭘 하든지.
그러니까 모든 순간이 하늘에서 낙하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먹는 것이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같이, 따로따로 은혜인 것이지요.
이 따로따로 받은 은혜를 통해, 은혜를 더블로 트리플로 뭐 곱으로 계속해서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택배 아저씨들,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르면서 몇 푼 받아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먹고산다고 생각을 하면, 이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내가 날라다 주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 이 일은 내 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서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먹을 것도 주신다, 그러면 일도 되고 먹는 것도 은혜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한 번 그렇게 살아 보시지요,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인생의 모든 순간에 행동들을, 사건들을 이 땅에서 서로서로 연결시키어, 이유와 목적과 계기등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옵시며,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들여짐으로써, 이 땅에서 육체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들로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